

# 광주·전남 121만명 대피할 곳이 없다

북해 위기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유사시 대피할 수 없는 인원이 1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강원 흥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 현황 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649개 읍·면·동 중 36%에 달하는 1279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

농어촌지역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에서는 전체 323개 읍·면·동

## 대피소없는 읍·면·동 광주 9곳·전남 225곳 수용 인원이 주민등록 인구 미달하는 곳 수도둑

가운데 225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피소 부재율이 69.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른다.

광주도 96개 동 가운데 9개 동에 대피소가 없어 부재율이 9.5%에 달했다.

특히,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 인원이 주민

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광주가 23개, 전남은 275개로 실제 대피할 수 없는 인구는 광주가 21만명, 전남이 100만명으로 추산됐다.

농어촌의 경우 대다수 대피소가 읍이나 군청 인근 중심지에 집중돼 있어 면단위 주민들은 전쟁 등이 발발하면 실제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의원은 "국민 안전에는 도·농 차이가 없는 만큼 행안부는 민방위 업무지침을 개정해 면 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저도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부지원 시설을 설치, 유사 시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시

## 보복범죄 집결 폭력조직원 3명 구속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폭력조직 간 보복범죄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속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하자 지난 8월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광주 한 지역에 집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광주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20명을 적발해 이중 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2명 소년보호사건 송치·1명을 지명 수배했다.

또 시민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등으로 폭력조직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광주지검과 광주경찰청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조직폭력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분기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아울러 폭력조직원 개인의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원칙과 중형 구형 등 엄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추천정 기자

##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선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여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업계획서의 추정사업비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가능성만으로 예산이 확보됐다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하남산단단지가 국가에 산으로 지정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며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적 표현인 만큼 해당 부분만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을비맞는 국화꽃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12일 경남 함양군 삼림경관단지에서 시민들이 가을 향기 가득한 국화꽃길을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 위안부 할머니 모욕 발언 순천대 교수 '파면'

수업 중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젊은 여성을 비하한 순천대학교 교수에 대해 파면이 의결됐다.

순천대학교는 11일 오후 사법대학 A(56)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따라 12일 박진성 총장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대 징계위원회는 재직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11일 오후 늦게 A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징계위는 강의 중에 이뤄진 A 교수의 발언이 국립대 교수로서의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A 교수가 징계 의결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파면 여부는 A 교수의 행보에 달렸다.

순천대 박진성 총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A 교수가 강의실에서

행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 받은 학생들과 위안부 할머니, 대학 구성원들에게 총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며 이 일로 순천대의 명예와 지역민들의 자존감이 큰 상처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총장은 "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한 치의 치우침이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장 직속의 진상조사 TF팀 운영을 통해 진상을 낱알이 파악했고, 결과에 따라 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결과 해당 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어 "징계처리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학 내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제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A 교수는 강의 중 위안부 할머니와 여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항의 소동이 벌어졌

## 제주시 성매수남 돈 뜯은 청소년들 검거

제주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수천만원대 강도행각을 벌인 겁 없는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18) 군 등 총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1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이들 청소년은 인터넷 메신저로 남성들을 유혹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8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학생이 남성과 함께 제주 시내 모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남학생들이 곧이어 현장을 덮친 후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여학생들은 남성과 실제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금을 쉽게 내준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붙잡힌 청소년 6명 가운데 3명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마약 밀수' 현직 공무원·대학생 형제 기소

검찰이 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마약사범 6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연)는 현직 공무원 구모(50)씨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했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구씨와 이모(40)씨가 함께 자금을 조달하고, 최모(45)씨가 마약류를 직접 가지고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차된 구씨 차량 트렁크에서 주사기와 알콜솜이 다량 발견됐다"며 "이를 토대로 구씨가 수화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형제 마약사범'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미국 유학생인 오모(27)씨와 국내 대학생인 오씨의 동생(23), 오씨 군대 선임 하모(33)씨 등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심부름업체로 액상대마를 배송하고, 업체가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 넣어두면 찾아가는 방법으로 3개월 간 7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31개를 밀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검거 이전에도 6회에 걸쳐 액상대마를 밀수한 사실까지 밝혀냈지만 형제 관계를 고려해 동생 오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에 대해 형제의 마약류 밀수범죄가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행복, 건강한 생활

일반 건강검진

생애진단기 건강검진

영양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사망률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
↓ 42%p 감소	↓ 18%p 감소
건강검진 받은 사람	건강검진 받은 사람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종료되거나 아직 미처 검진 받지 않음.

보건복지부 | 통번역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